

疎肝飲으로 살펴보는 조선의학에 대한 一考

金大亨*1) · 安相佑**2)

한국한의학연구원

【 ABSTRACT 】

A thought on Joseon's Medical Science through a look at SoGanEum(疎肝飲)

KimDaeHyeong AnSangU

Korean Oriental Medicine Research Center

This study makes SoGanEum(疎肝飲), which is included in YoYak(要略) [JangBuPyoBonHeoSil MaekYakChongBang (臟腑標本虛實脈藥摠方)], its object. It elucidates the origin of this prescription from Chinese medical texts, and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shown in the process of reception through Joseon's exemplary medical texts.

key word : Korean Orinetal Medicine, YoYak(要略), SoGanEum(疎肝飲)

*1)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연협동과정

**2)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부

1. 序論

疎肝飲은 『要略』이라는 필사본에 인용되어 있는 처방명이다. 『要略』은 서문에서 ‘蒼龍인해의 늦은 봄인 음력三月 下旬에 白山아래에서 松溪散인이 지었다¹⁾’고 하였으나 저자인 松溪散인이 누구인지, 언제 지어졌는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蒼龍이 五行과 12干支의 배속에 따라 甲辰年이라는 것만 알 수 있고, 그나마 『東醫寶鑑』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서 조선후기로 추정할 따름이다.

『要略』의 본문을 대조 비교하던 중 인용되어 있는 180여개의 처방²⁾중에서 『東醫寶鑑』에는 인용되어 있지 않은 세 가지 처방, 疎肝飲, 平肝流氣飲, 三健湯³⁾을 발견하였다. 이 처방들이 조선의서에서 쓰인 용례를 찾아내고 연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조선중기에서 후기에 걸친 주요 의서에서 조선이 중국의학을 수용하고 토착화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단순히 몇 가지 처방만 가지고서 『醫林撮要』에서 『醫宗損益』에 이르는 몇 백년의 시간을 살펴보는 것은 座井觀天의愚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따로 떨어져 있는 점들을 선으로 잇고 또 이 선들을 확장시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존 많은 연구자들이 문헌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의사학을 연구해왔다면 본 논문은 疎肝飲이라는 한 처방을 통해서 점의 영역을 확대하고 이러한 점들의 연결을 시도하는 연구방법을 택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처방 중 의사학적인 특징⁴⁾이 잘 드러나는 疎肝飲을 중심으로 疎肝飲에 대한 이해, 疎肝飲의 기원, 조선의서에서 나타난 疎肝飲의 순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선의 의가들이 중국의 새로운 의학지식을 수용하고 토착화하는 과정을 그들의 의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먼저 본 논문의 이해를 돕고자 『要略』이라는 문헌에 대한 학술적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한다. 『要略』은 1卷1冊으로 세로와 가로가 24.5×14.5cm, 132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表紙, 目錄, 序文을 갖추고 있는 필사본으로, 목록은 <藏府病>, <藏府脈>, <十二經

1) 『要略』序文 “歲在蒼龍 春三月下旬 白山下 松溪散人題”

2) 중복되는 처방은 제외하였다.

3) 『要略』의 [臟腑標本虛實脈藥總方]에서 疎肝飲은 肝標病에, 平肝流氣飲은 膽本病에, 三健湯은 命門本病에 속해 있다.

4) 平肝流氣飲은 『萬病回春』의 脇痛門에서 출전하고 이후 龔廷賢의 의서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조선의 의서에서는 용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三健湯은 『綱目』으로 출전을 밝히고 있는데 『本草綱目』, 『濟陰綱目』등을 찾아본 결과 「痲冷」에서 모두 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太平惠民和劑局方』, 『世醫得效方』, 『玉機微義』, 『名方類證醫書大全』, 『濟衆新編』등 다양한 의서에서 인용되어 있다. 平肝流氣飲은 인용횟수와 인용문헌이 적고, 三健湯은 너무 많아서 논외로 하였다.

表本>, <傷寒>, <內傷>, <虛勞>의 순으로 되어 있다. 序文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을 드러내는 『教人要略』⁵⁾이라는 다른 서명을 제시하고 있고, 기존 한국과 중국에서는 동일한 서명과 내용을 가진 의학문헌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의학교육을 목적으로 쓰여진 조선후기의 미간행원고본으로 추정된다.

『要略』에는 학술적으로 특징적인 면이 있는데, 첫째로 조선초기에 『醫方類聚』에서 마지막으로 인용된 이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도가문헌인 『五臟六腑圖』⁶⁾중 五臟과 膽에 관련된 내용이 인용되어 있어서 조선의 도맥이 이어져 내려 온 것을 증명하는 단서가 된다.

둘째로 陳無擇이 『三因極一病證方論』에서 三因, 즉 內因, 外因, 不內外因으로 병인을 나눌 것을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要略』에서는 內因七情과 外因六淫을 병인으로 보는 二因論을 주장한다.

세째로는 조선의 대표적인 의서인 『東醫寶鑑』에서 처방과 주치증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으나 단어를 바꾸거나 여러 개의 문장을 합치고 새로운 문장을 추가하는 등 저자의 관점에 따라 많은 변화를 주었다. 그리고 「傷寒門」·「內傷門」·「虛勞門」의 내용을 정리하여 「二因學要方」이라 하여 二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二인에 대한 이론을 심화시켰다.

네째로 목록의 <十二經標本>은 본문에서는 [臟腑標本虛實脈藥總方]으로 되어 있다. 十二經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心小腸, 肝膽, 腎膀胱, 肺大腸, 脾胃, 命門, 心包絡, 三焦 등 13개의 臟腑가 언급되어 있다.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13개 臟腑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말하였는데, 이는 『本草綱目』 「臟腑虛實標本用藥式」와 형식과 내용이 유사⁷⁾하나 『要略』에는 『本草綱目』의 12臟腑체계와는 달리 心包의 내용이 추가되어 있고, 장부배열⁸⁾에서 차이점이 있다. 十三臟腑를 標本으로 나누고 標病과 本病을 다시 脈의 浮沈遲數과 有力無力의 조합에 따라 각각 4가지로 분류⁹⁾한 다음 병증과 처방명에 대해서는 『東醫寶鑑』의 내용을 위주로 설명하였다. 위와 같이 구분하고 의론을 갖추고 있는 것은 『本草綱目』에는 없는 것으로 臟腑중

5) 『要略』序文 “余聞此語 欲使蒙學無有此論 集書藏府病症之要者及內外二因病脈之大綱 又註各脈下治症以 成一帙而名之曰教人要略”

6) 『醫方類聚』에 인용되어 있는 『五臟六腑圖』는 당나라 여도사인 胡愔이 대종2년(848)에 지은 『黃庭內景五藏六府圖』와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의 모본 또는 이본으로 추정된다. 胡愔은 『黃庭經』의 내용 중 五臟과 膽이라는 장부체계를 기본으로 의학과 결합을 통하여 도교와 의학이 결합된 도교의학을 추구하였고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문헌에서는 六腑에 대한 개념이 기존 의학에서 膽,胃,大腸,小腸,膀胱,三焦을 지칭하는 것과는 달리 肺,心,肝,脾,腎과 膽을 六腑(六府)라고 하였다. 또한 六腑에 대하여 머물러 있는 神들의 이름과 字, 形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학의 生理, 病理, 治法, 處方, 藥物禁忌와 도교수련의 呼吸法, 導引法, 禁忌法 등을 결합한 체계를 선보이고 있다. 『要略』에는 『五臟六腑圖』의 神들의 이름과 字, 形狀 그리고 生理, 病理, 診斷, 治法에 관련된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7) 『本草綱目』 「臟腑虛實標本用藥式」 “心藏神 爲君火 包絡爲相火 代君行令 主血 主言 主汗 主笑”

8) 『要略』의 장부배열순서는 心,小腸,肝,膽,腎,膀胱,肺,大腸,脾胃,命門,心包,三焦의 순으로 되어 있고, 『本草綱目』에서는 肝,心,脾,肺,腎,命門,三焦,膽,胃,大腸,小腸,膀胱의 순서로 되어 있다.

9) 本病은 沈數有力, 沈數無力, 沈遲有力, 沈遲無力으로 標病은 浮數有力, 浮數無力, 浮遲有力, 浮遲無力的 4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심외 변증체계로 이루어진 『要略』만의 특징이기도 하다.

2. 본론

1. 疎肝飲에 대한 이해

疎肝飲은 [臟腑標本虛實脈藥摠方] 에서 肝의 標病人 경우에 사용하는 처방으로 원문을 보면 아래와 같다.

“標病으로 左關의 脈이 …… 浮數하면서 無力경우에 …… 痰結과 瘀血로 인해 肝氣가 鬱滯되어 나타나는 左脇痛에 疎肝飲을 쓴다¹⁰⁾”

위의 문장을 이해하는데는 먼저 標病¹¹⁾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要略』에는 언급이 없으므로 다른 문헌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要略』의 [臟腑標本虛實脈藥摠方] 과 비슷한 체계로 되어 있는 『本草綱目』의 「臟腑虛實標本用藥式」에는 本病과 標病에 대한 개념은 정의되어 있지 않고 증상만 언급되어 있다. 『本草綱目』에서 李東垣의 글을 인용한 「標本陰陽」¹²⁾을 살펴보면 인체의 內外陰陽에 따라 標本을 상대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要略』의 標本을 이해하기에는 번잡한 면이 있다.

“李杲가 말하기를 무릇 병을 치료하는 자라면 마땅히 標本을 알아야 한다. 몸으로써論한다면 밖은 標이고 안은 本이며, 陽은 標이고 陰은 本이 된다. 그러므로 六腑는 陽에 속하여 標가 되고 五臟은 陰에 속하여 本이 되며, 臟腑는 안에 있어서 本이 되고 十二經絡은 밖에 있어서 標가 된다. 臟腑陰陽氣血經絡도 또한 각각 標本이 있다.¹³⁾”

다음으로 『要略』에 많은 영향을 준 『東醫寶鑑』을 살펴보면, 「寒門 · 六經標本」에서는

10) 標病左關脈……浮數無力……左脇痛 痰結及瘀血 肝氣鬱滯 疎肝飲
 11) 『本草綱目』의 「序例卷之一」에서는 肝의 標病의 증상을 “寒熱瘧 頭痛 吐涎 目赤面青 多怒 耳閉頰腫 筋攣 卵縮 丈夫癰疽 女人小腹腫痛 陰病”이라고 하였다.
 12) 『本草綱目』 「序例卷之一」에 있는 것으로 『東醫寶鑑』 「用藥 · 治病必求於本」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醫學入門』을 재인용하고 있다.
 13) 『本草綱目』 「標本陰陽」 “標本陰陽 李杲曰夫治病者當知標本以身論之外爲表內爲本陽爲表陰爲本故六腑屬陽爲表五臟屬陰爲本臟腑在內爲本十二經絡在外爲標而臟腑陰陽氣血經絡又各有標本焉”

『醫學入門』을 인용하여 經絡을 標로, 臟腑를 本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서 『要略』을 이해 하는데 용이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經絡은 標가 되고 臟腑는 本이 된다. 예를 들어 太陽經은 標이고 膀胱은 本이 된다. 나머지도 이와 같다.¹⁴⁾”

또한 趙術堂¹⁵⁾의 『醫學指歸 · 本草臟腑虛實標本用藥式』¹⁶⁾에서도 本病을 臟腑之病으로, 標病을 經絡之病으로 보고 있어 『東醫寶鑑』의 견해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東醫寶鑑』의 기준에 따른다면 本病은 臟腑病으로, 標病은 經絡病으로 보아야 하므로 疎肝飲은 肝의 經絡에 病이 생긴 증상에 쓸 수가 있다. 診脈에 있어서 本病은 沈取하고 經絡病은 浮取하므로 肝經絡의 寸맥부위인 左關의 浮部位에서 脈이 數하면서 無力하게 나타나면서 左側에 脇痛이 있으면 痰結과 瘀血이 肝經絡의 運行에 阻障을 주어 肝氣가 鬱滯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疎肝飲을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疎肝飲의 기원

疎肝飲이 쓰인 용례를 조선과 중국의 의서에서 찾아내어 그 기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疎肝飲이 조선의서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醫林撮要續集』 卷七의 脇痛門¹⁷⁾으로 추정된다. 이는 『醫林撮要續集』에서 疎肝飲과 柴胡芍歸湯을 인용하면서 1588년에 간행된 龔廷賢의 『萬病回春』을 출전으로 밝히고 있어서 『醫林撮要續集』의 저작연대와 차이가 최대 20년정도밖에 나지 않기 때문이다.

『醫林撮要』는 著者と 저작시기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왔지만 김홍균의 연구¹⁸⁾에 의

14) “經絡爲標 藏府爲本, 如太陽經爲標 膀胱爲本. 餘倣此入門”

15) 清代의 醫家, 字는 雙湖, 또는 觀瀾이라고도 칭하였음. 江蘇 高郵人. 興化에서 오래 살았으며, 『醫學指歸』 2卷을 저작했고(1848年), 張元素의 「臟腑藥式」에 대하여 注解를 가하였다. (이상 한의학대사전 의사문헌편, p.275-276)

16) 趙術堂輯, 『醫學指歸』(凡二冊, 江蘇廣陵古籍刻印社出版, 揚州古籍書店發行, 1988년 3月 印刷)
趙術堂은 淸대의 醫家. 字는 雙湖, 또는 觀瀾이라고도 칭하였음. 江蘇 高郵人. 興化에서 오래 살았으며, 「醫學指歸」 2卷을 저작했고(1848年), 張元素의 「臟腑藥式」에 대하여 注解를 가하였다. (이상 한의학대사전 의사문헌편 p.275-276)

『醫學指歸』에는 각 장부마다 臟腑圖, 經絡圖를 첨부하고, 內經에서 經絡의 원문을 인용하고서 經絡, 穴, 分寸에 대하여 외우기 쉽게 노래 형식으로 정리하였고, 각 經絡의 病證에 대하여도 자세한 해설을 하였다.

17) 疎肝飲 治左脅下痛肝積屬血
黃連 吳茱萸煎汁炒二錢 柴胡 當歸 各一錢半 青皮 桃仁 研 枳殼 各一錢 川芎 白芍藥 各七分 紅花 五分 右剉一服 水煎食遠服

18) 김홍균, 『醫林撮要』의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박사학위, 2000

하면 초기형태의 8卷本이 선조 22년(1589)에서 25년(1592)사이에 만들어졌고, 선조 33년(1600)에 양예수가 사망하고 나서 李絡과 李希憲에 의해 方廣의 『丹溪心法附餘』, 李梴의 『醫學入門』, 龔信的 『古今醫鑑』, 龔廷賢¹⁹⁾(1522-1619)의 『萬病回春』에서 8卷本에 추가시킬 내용을 추려내어 광해군 즉위년인 1608년 가을에 『醫林撮要續集』²⁰⁾을 만들었는데, 이 4가지 문헌에서 들이간 내용이 續集의 절반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萬病回春』은 1587년에 저술되어 명나라 萬曆16年(戊子, 1588)에 蘇州葉龍溪刻本으로 최초 간행된다. 저술연대의 차이로 보아 『醫林撮要』의 저자인 양예수가 8卷本을 저술할 때 『萬病回春』을 참고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나, 김²¹⁾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김의 주장을 바탕으로 하면 『醫林撮要續集』의 疎肝飲은 1608년에 만들어질때 추가된 처방인 것으로 보인다.

『萬病回春』²²⁾ 脅痛門의 내용과 『醫林撮要』 脇痛門의 疎肝飲을 비교해보면 처방내용과 용량은 동일하나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처방명에 있어서 『萬病回春』에는 疎肝飲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醫林撮要』에서 인용할 때 疎肝飲으로 변경하였고, 주치증도 “治左脅下痛 肝積屬血 或因怒氣所傷 或跌撲閃挫所致 或爲痛”에서 “治左脅下痛 肝積屬血”로 간략하게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萬病回春』의 脇痛門을 살펴보면 먼저 맥상에 따른 증상과 원인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나서 바로 처방이 이어지므로 『醫林撮要』의 脇痛門만큼 총론부분이 자세하지 않다. 따라서 『萬病回春』에서는 脇痛에 대한 설명이 처방의 주치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주치증의 내용이 자세하고, 『醫林撮要』 脇痛門의 총론부분에서는 ‘大怒’, ‘傷寒’, ‘食積’, ‘死血’, ‘脾虛’ 등 협통의 원인과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기에 처방의 주치증에서는 내용을 중복하지 않고 주된 원인만을 인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萬病回春』 외에 이전의 문헌에서 疎肝散을 찾아보면, 龔廷賢의 아버지인 龔信的 저작으로 대략 萬曆四年(1576)경²³⁾에 지어진 『古今醫鑑』과 龔廷賢이 1581년에 지은 『種杏仙方』에는

19) 『醫林撮要續集』의 歷代醫學姓氏에서 龔廷賢을 世醫로 분류하였는데, 世醫는 의사를 본업으로 삼고 대대로 계승한 사람들(以醫爲業, 世代相承者也)을 말한다. 龔廷賢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龔信의 아들로 號는 雲林山人이며 明나라 萬曆年間 癸未年에 태어난 사람이다. 『萬病回春』 8권과 『種杏仙方』 등의 책을 편찬하였다.(龔信之子, 號雲林山人, 萬曆癸未人, 撰萬病回春』 八卷 『種杏仙方』 等書)”

20) 그 뒤에도 『醫林撮要』는 계속 증보되어 正祖 원년(1777년)무렵에 改鑄된 五鑄甲寅活字本으로 12卷本이 발간되었다가, 그 뒤 정조 1년(1777년)과 정조6년(1782년)사이에 重刊되면서 이루어졌던 것이 현재 전해지는 『醫林撮要』 13卷本인 것으로 추정된다. 저자와 저작시기, 판본, 증보된 내용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홍균, 『醫林撮要』의 의학적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 2000”와 ”『Digital 『醫林撮要』 해설집(안상우 편저,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부, 2004)』의 『醫林撮要』해제“를 참고하기 바란다.

21) 김홍균, 『醫林撮要』의 의학적 연구, 2000, p. 42

22) 龔廷賢, 增補『萬病回春』卷下, 一中社影印, 1994, p. 49-50

[疎肝散] 治左脅下痛 肝積屬血 或因怒氣所傷 或跌撲閃挫所致 或爲痛

黃連吳茱萸煎汁炒二錢 柴胡 當歸酒洗各一錢半 青皮 桃仁研如泥 枳殼麩炒各一錢 川芎 白灼酒炒各七錢 紅花五分 右挫 一劑, 水煎 食遠服

“川芎 白灼酒炒各七錢”에서 用量이 七錢으로 되어 있는데 七分의 오자이다. 『明清醫學全書大成』에는 七分으로 되어 있다.

인용되어 있지 않다. 또한 『丹溪心法(1481)』, 『醫學正傳(1515)』, 『丹溪心法附餘(1536)』, 『古今醫統大全(1556)』, 『醫學入門(1575)』 등에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萬病回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처방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인용한 『醫林撮要續集』이 疎肝飲을 인용한 가장 이른 시기의 조선의학문헌으로 본다.

이후 龔廷賢의 의서중에서 1594년에 지어진 『魯府禁方』²⁴⁾과 『雲林神彀(1591)』²⁵⁾에는 疎肝飲이 실려 있고, 『濟世全書(1604)』²⁶⁾, 『壽世保元(1615)』²⁷⁾에는 내용상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脇痛門에 疎肝散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醫林撮要續集』에서 『魯府禁方』과 『雲林神彀』를 참고하여 疎肝飲으로 처방명을 바꾸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醫林撮要』의 역대의학성씨²⁸⁾에 기록된 龔廷賢의 저서로 『種杏仙方』과 『萬病回春』만 언급하고 있어서 『魯府禁方』과 『雲林神彀』의 疎肝飲을 인용하였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3. 조선의서에 나타난 疎肝飲

『醫林撮要』이후의 조선의서에서는 내의원 首醫인 康命吉에 의해 1799년에 저술된 『濟衆新編』의 脇痛門에도 疎肝飲이 언급되는데, 원문을 통해 특징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保元) 治左脇下痛 肝積屬血 或因怒氣所傷 或跌撲挫閃所致而爲痛

23) 《中國醫籍大辭典》編纂委員會, 『中國醫籍大辭典』 上冊, 2002, p. 604

24) 龔廷賢著, 李世華 王育學主編, 『明清醫學全書大成』,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102

治左脇下痛者 肝積屬血 或因怒氣所傷 或跌閃所致 或爲痛

黃連吳茱萸煎汁拌炒二錢 當歸 柴胡一錢五分 青皮一錢 桃仁研如泥一錢 川芎 白芍酒炒各一錢一分 紅花五分 水煎 食遠溫服

25) 龔廷賢著, 李世華 王育學主編, 상계서, p.182

脇痛在左者 肝經受客邪 或怒或跌閃 活血順氣佳 疎肝飲內用芎歸 柴胡白芍與青皮 桃仁紅花并枳殼 黃連吳茱萸炒用之 (九味)

26) 龔廷賢著, 李世華 王育學主編, 상계서, p. 994

治左脇下痛者 肝積屬血 或因怒氣所傷 或跌閃所致 或爲痛

當歸一錢半 川芎七分 白芍酒炒七分 柴胡一錢五分 青皮一錢 黃連吳茱萸煎汁拌炒二錢 桃仁研如泥一錢 紅花五分 枳殼麩炒一錢 上挫一劑 水煎 食遠溫服 按上方 治肝氣盛 作脇痛在左者

27) 龔廷賢著, 李世華 王育學主編, 상계서, p. 644

一論左脇下痛 肝積屬血 或因怒氣所傷 或顛仆閃挫所致而爲痛也

黃連吳茱萸煎汁炒二錢 柴胡 當歸酒洗各一錢五分 青皮去穢 桃仁研如泥 枳殼麩炒各一錢 川芎 白芍酒炒各七分 紅花五分 上挫 一劑, 水煎 食遠服

28) 『醫林撮要』의 역대의학성씨는 『醫學入門』의 영향을 받아 醫人을 각각 上古聖賢, 儒醫, 世醫, 德義, 神仙道術 등 여섯부류로 나누고 마지막에 本朝名醫인 楊禮壽와 許浚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醫學入門』에서는 215명의 醫人을 언급하고 있으나 『醫林撮要』에서는 陳無擇, 宋太宗, 王熹, 李梴, 王璽, 龔信, 龔廷賢 등 9명을 추가하여 모두 224명을 기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흥균, 『醫林撮要』의 의사학적 연구, 2000, p. 74-81”참고)

黃連芩莢煎汁炒三錢 柴胡 當歸酒洗各一錢五分 青皮去穢 桃仁研如泥 枳殼麩炒各一錢 川芎 白灼藥酒炒各七分 紅花五分 水煎 食遠服

첫째로 『壽世保元』의 처방을 인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疎肝飲이란 處方名은 조선의서인 『醫林撮要』의 疎肝飲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로 인용문헌으로 밝히고 있는 『壽世保元』에서의 주치증인 “一論左脇下痛 肝積屬血 或因怒氣所傷 或顛仆閃挫所致而爲痛也”과 차이점이 발견된다.

세째로 黃連의 용량이 龔廷賢의 의서에서는 二錢이었으나 三錢으로 변경하였다.

『濟衆新編』의 引用諸方²⁹⁾에는 21종의 의서가 언급되는데 이 중에서 龔廷賢의 『萬病回春』과 『壽世保元』에서의 처방인용횟수가 『東醫寶鑑』을 제외하고 제일 높다. 지창영³⁰⁾의 연구에 따르면 『壽世保元』이 40종, 『萬病回春』이 25종의 처방이 인용되어 있어 20종을 인용한 『醫學入門』보다 빈도수가 높다고 하였다. 지의 연구³¹⁾에 따르면 『醫林撮要』³²⁾도 引用諸方에 속해있는 의서이기는 하지만 『壽世保元』과 『萬病回春』의 처방인용빈도수가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壽世保元』을 인용하면서 疎肝散이 아니라 『醫林撮要』에서 기원한

29) 『濟衆新編』의 引用諸方에는 조선의 대표적인 의서인 『東醫寶鑑』과 『醫林撮要』를 비롯하여 21종의 의서를 수록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靈樞經, 『醫學正傳』(1515.明), 丹溪心法(1481.元), 『萬病回春』(1587.明), 『壽世保元』(1615.明), 『本草綱目』(1593.明), 『醫學入門』(1775.明), 百代醫宗, 痘疹心法(1568.明), 保嬰撮要(1555.明), 痘科彙編, 赤水玄珠(1584.明), 醫方集略(1545.明), 景岳全書(1636-1640), 濟陰綱目(1260.明), 得效方(1345.元), 張氏經驗方, 趙氏經驗方, 黃氏經驗方(清.黃世賢)등이다. 『本草綱目』은 萬曆6년(1578)에 원고가 완성되고 萬曆21년(1593)에 金陵(현재 南京)의 胡承龍이 간행하였다. 一說에는 萬曆18年(1590) 또는 萬曆24年(1596)에 간행되었다고도 한다.(이상 中國醫籍大辭典, p.262-263)

景岳全書는 『韓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p.81에서는 1624년에 撰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河基泰 등의 “『景岳全書』가 朝鮮後期 韓國醫學에 미친 影響에 대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제20권, 2호”에는 『景岳全書』의 「雜證謀·諸氣·總論氣理」와 「傳忠錄·陽不足再辨」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대략 1636년에서 1640년 사이에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명칭교체기의 정치적혼란으로 바로 출간이 되지 못하고 여러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으나 60년이 지난 康熙 39년(1700)에 이르러서야 최초로 출간된다. 이것이 경약전서의 3가지 주요판본인 魯本, 賈本. 查本중에서 魯本으로 康熙 39년(1700)에 景岳과 同鄉의 廣東布政使 魯超가 張景岳의 外孫 林日蔚과 함께 廣州에서 간행한 것이다. 경약전서는 康熙 52년(1713년)에 查禮南이 廣東에서 魯本을 기초로 교정하여 重刊한 查本에 이르러서야 널리 알려진다. 조선에서 경약전서를 최초로 기록하고 있는 문헌은 景宗4年(1724)에 지어진 周命錫의 『醫門寶鑑』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醫門寶鑑은 高宗 때 內醫였던 李命錫이 새롭게 편집한 것이어서 初稿와 出刊本에 차이가 있으므로 1724년의 初稿에는 『景岳全書』가 인용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하기태는 조선으로의 유입은 景岳全書가 널리 유통되기 시작한 查本이 지어진 시기와 의문보감의 지어진 시기인 1713년에서 1724년사이로 보고 있다. 경약전서는 이후 조선의 의서에 많은 영향을 미쳐 正祖때 康命吉의 『濟衆新編』, 丁若鏞의 『麻科會通』, 高宗때 黃度淵의 『醫宗損益』, 『方藥合編』과 李圭駿의 『醫鑑重磨』등에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30) 지창영, 『濟衆新編』의 의사학적 고찰. 경희대 박사학위, 2003, p. 22.

저자가 살펴본 바로는 『壽世保元』은 49회, 『萬病回春』은 30회 인용되었다.

31) 지창영, 『濟衆新編』의 의사학적 고찰. 경희대 박사학위, 2003, p. 11.

32) 『濟衆新編』의 食復, 積痢, 咽喉痛, 瘧疾治法, 大頭瘟, 十疰五尸, 瘰癧, 疔瘻, 陰蝕瘻에서 『醫林撮要』의 내용을 11회 인용하고 있다.

疎肝飲이란 처방명을 인용했을까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濟衆新編』의 跋文³³⁾에서 正祖가 강명길에게 한 말을 보면,

“우리 나라의 醫書중에 오직 許浚의 『東醫寶鑑』만이 詳悉하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문장이 혹은 煩冗하고, 語가 간혹 重疊하며, 證이 간혹 闕漏하였으며, 應用할만한 처방 중에 빠져서 기록되지 않은 것이 많다. 內經에서 ‘知其要者一言而終 不知其要者流散無窮’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너는 널리 方書를 取하여 煩한 것을 없애고, 그 요점을 취하여서 별도로 하나의 方書를 만들라”

고 하여 『東醫寶鑑』 이전의 『萬病回春』과 『醫學入門』, 이후의 『壽世保元』을 참고하여 많은 補入이 된 것은 『濟衆新編』의 인용서목과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정조의 명에 의해 포함된 疎肝飲은 『東醫寶鑑』에서 빠져서 기록되지 않았으나 응용할만한 많은 처방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내용은 중국 의서에서 가져올지라도 앞시대의 조선 의서인 『醫林撮要』에서 서명을 가져온 것으로 보아 疎肝飲이라는 처방이 이미 조선에서는 토착화되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둘째로 『濟衆新編』에서 언급한 주치증은 『壽世保元』을 인용한 것으로 『壽世保元』의 “顛仆閃挫”가 “跌撲挫閃”으로 바뀐 것만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는 거의 같다. 『壽世保元』의 “顛仆閃挫”가 『萬病回春』에는 “跌撲閃挫”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濟衆新編』의 引用諸方에 『壽世保元』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萬病回春』을 참고하여 “顛仆”을 “跌撲”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라고 본다. 이는 하나의 문장을 인용하더라도 다양한 문헌과 비교해보아 저자의 주관에 따라 문장을 변용하고 있어 주체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가 드러난다.

세째로 黃連의 용량이 二錢에서 三錢으로 변경된 것은 명나라의학이 이미 조선에 맞게 변형되어 토착화 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은 『濟衆新編』 이후의 문헌에서 황련의 용량이 三錢으로 통일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보다 먼저 약물의 양에 대하여 조선사람의 氣稟에 맞게 기존문헌의 처방을 대대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은 『東醫寶鑑』의 集例³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미 허준에 의해 이루어진 바가 있다.³⁵⁾

33) 『濟衆新編』, 한국의학대계 18권, 여강출판사, 1994, p. 627-628

34) 古人藥方所入之材兩數太多卒難備用局防一劑之數尤多貧寒之家何以辦此得效方醫學正傳皆以五錢爲率 甚爲鹵莽 蓋一方只四五種則五錢可矣而至於二三十種之藥則一材僅入一二分性味微小焉能責效惟近來古今醫鑑萬病回春之藥一貼七八錢或至一兩藥味全而多寡適中合於今人之氣稟故今者悉從此法皆折作一貼庶使劑用之便易云

『濟衆新編』 이후에 疎肝飲은 『醫宗損益』³⁶⁾에서도 나타나는데, 保元을 인용하고 있으나 주치증끝에 ‘濟衆’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濟衆新編』을 재인용한 것이다. 두 문헌이 모두 『壽世保元』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음에도 몇가지 차이점이 있다. 『醫宗損益』의 주치증은 『濟衆新編』의 내용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濟衆新編』의 “挫閃”을 『壽世保元』과 같이 “閃挫”라고 교정하였다. 이것은 『濟衆新編』을 재인용하면서도 『壽世保元』의 원문을 확인한 후에 『濟衆新編』의 내용을 교정한 것을 알 수 있다.

黃連의 三錢이라는 용량은 『濟衆新編』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문은 교정하더라도 用藥法에 있어서는 조선의 의서인 『濟衆新編』을 중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醫宗損益』 이후로 『經驗方』³⁷⁾과 『餌方』³⁸⁾³⁹⁾에서도 疎肝飲을 인용하고 있는데, 『經驗方』은 약물구성만 되어 있고 분량은 생략하고 있으며, 『餌方』은 제증신편의 내용과 동일하다.

3. 결론

疎肝飲은 甲辰年 春三月에 松溪散人에 의해 지어진 『要略』의 [臟腑標本虛實脈藥摠方]에 속해 있는 처방으로, 肝의 經絡病으로 左關의 浮部位에서 脈이 數하고 無力하면서 左側에 脇痛이 나타날 때 痰結과 瘀血이 肝經絡의 運行에 阻障을 주어 肝氣가 鬱滯된 것으로 진단하고 쓰

35) 『東醫寶鑑』과 『醫林撮要』脇痛門의 처방을 분석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枳殼煮散의 처방용량을 예로 들어 본다면 『醫林撮要』에서는 “防風 川芎 細辛 枳殼 桔梗 炒各四兩 甘草 二兩 乾葛 一兩半”으로 『世醫得效方』의 처방구성과 용량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1회 복용용량을 4錢으로 하였다. 『東醫寶鑑』에서는 송대 許叔微의 『普濟本事方』을 인용하고 있으나 『東醫寶鑑』의 처방구성을 보면 “枳殼二錢細辛桔梗防風川芎各一錢葛根七分甘草五分右剉作一貼入薑三片棗二枚”으로 전체처방용량이 거의 1兩으로 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普濟本事方』의 枳殼煮散은 枳殼細辛桔梗防風川芎이 各四兩, 葛根一兩半 甘草二兩 生薑三片 으로 약물이 구성되어 있고 1회복용용량을 4錢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각각 약물까지 용량을 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36) (保元) 治左脇下痛 肝積屬血 或 因怒氣所傷 或 跌撲閃挫所致而爲痛
黃連吳茱萸煎汁炒三錢 柴胡 當歸酒洗各一錢五分 青皮去穢 桃仁研如泥 枳殼麩炒各一錢 川芎 白芍藥酒炒各七分 紅花五分 水煎 食遠服(濟衆)

37) 黃連 吳茱萸 柴胡 當歸 青皮 桃只[枳]角[殼] 川芎 白芍 紅花 左脅痛

38) 舊斃二三貼 黃蓮[連]吳茱萸煎汁炒 三錢柴胡 當歸酒洗 各一錢五分 青皮去穢 桃仁研如泥 只[枳]殼夫[麩]炒 各一錢 川芎 白芍藥酒炒 各七分 紅花五卜水煎 食連服

39) 저자가 소장하고 있지 않은 문헌인 『經驗方』과 『餌方』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http://jisik.kiom.re.kr>)를 참고 하였다. 『餌方』은 1冊/ 50張/ 21×21.4cm으로 구성된 처방을 각종 처방을 모아놓은 필사본으로 序文과 跋文이 없어 작자와 저작연대를 알 수 없다. 조선후기부터 일제시대에 걸쳐 사용된 경험방을 모아 놓은 처방집. 『經驗方』은 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原本李王職藏版 昭和二年十月謄寫”라고 쓰여 있어 구황실 소장 판본을 1927년(소화 2년) 10월에 등사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문, 발문 등이 없기에 그 이상의 경위는 알 수 없다. 아마도 조선후기부터 일제시대에 걸쳐 사용된 경험방을 모아놓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경험처방집의 성격을 띤 서적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 참고)

는 처방이다.

『要略』의 疎肝飲의 기원은 1587년에 龔廷賢에 의해 지어진 『萬病回春』 「脇痛門」의 疎肝散이다. 疎肝散은 기존의 중국문헌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龔廷賢의 아버지인 龔信의 저작인 『古今醫鑑』과 龔廷賢이 1581년에 지은 『種杏仙方』에는 인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龔廷賢의 『萬病回春』에서 처음으로 기재된 처방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후 龔廷賢의 저작인 『魯府禁方(1594)』, 『雲林神彀(1591)』, 『濟世全書(1604)』, 『壽世保元(1615)』의 脇痛門에서 공통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임상적으로 유효한 처방으로 보인다.

조선의서에서 疎肝飲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醫林撮要』 8卷本이 李絡과 李希憲에 의해 광해군 즉위년인 1608년 가을에 증보된 『醫林撮要續集』으로 『萬病回春』의 疎肝散이란 처방명을 변경하여 인용하고 있고, 『萬病回春』 疎肝散의 주치증을 중심되는 원인만 간략하게 인용하고 있다. 이것은 『醫林撮要續集』에서는 脇痛에 관련된 총론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였기에 처방의 주치증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총론부분이 脈에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모아놓은 『萬病回春』과의 서술체계가 다르기 때문으로 새로운 의학지식의 수용에 있어서 주체적 수용과 토착화하려는 시도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후 1799년에 지어진 『濟衆新編 · 脇痛門』에서는 疎肝飲을 인용하면서 『壽世保元』을 인용문헌으로 밝혔으나, 처방명은 『醫林撮要續集』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의학이 조선의학으로 토착화되어 일반적으로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濟衆新編』에서는 二錢이었던 黃連의 용량을 三錢으로 바꾼 것은 『東醫寶鑑』 이후 조선사람의 氣稟에 맞는 처방구성과 약물의 용량을 조정하려고 했던 노력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며, 이후의 조선의서인 『醫宗損益』, 『經驗方』, 『餌方』 등에서 三錢이라는 분량을 따르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이후로 『濟衆新編』의 처방이 보편화되었음을 나타낸다. 『醫宗損益』에서는 保元을 인용하고 있는 『濟衆新編』의 주치증의 내용을 재인용하고 있으나 『萬病回春』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치증을 변용한 것은 단순히 인용에 그치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이 『要略』의 疎肝飲에 대하여 중국의서에서의 기원을 밝히고 그것이 조선에서 수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조선의 대표적인 의학문헌들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우리의 선조들은 새로운 의학지식을 수용하면서 조선이라는 새로운 그릇에 맞게 토착화를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왔고 이러한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와 허준이 『東醫寶鑑』에서 말했던 東醫의 脈이 중국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으로 자리잡아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은 국내와 국외에서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속에서 사는 현대의 의학자들에게 선조들의 이러한 전통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1) 저자미상, 『要略』, 필사본
- 2) 김예몽 等撰, 『醫方類聚』, 浙江省中醫研究所 · 湖州中醫學院 校 人民衛生出版社, 1981
- 3)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1987
- 4) 康命吉, 『濟衆新編』, 한국의학대계 18권, 麗江出版社, 1994
- 5) 黃度淵, 『醫宗損益』, 한국의학대계 25,26卷, 麗江出版社, 1994
- 6) 龔廷賢, 增補『萬病回春』卷下, 一中社影印, 1994,
- 7)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韓醫學大辭典 · 醫史文獻編』,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 8) 中國醫籍大辭典編纂委員會, 『中國醫籍大辭典』上冊, 2002
- 9) 趙術堂輯, 『醫學指歸』, 江蘇廣陵古籍刻印社出版, 揚州古籍書店發行, 1988년 3月 印刷
- 10) 龔廷賢著, 『魯府禁方』, 『雲林神彀』, 『濟世全書』, 『壽世保元』, 李世華 王育學主編, 『明清醫學全書大成』,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11) 龔廷賢, 增補『萬病回春』卷下, 一中社影印, 1994
- 12) 안상우 편저,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부, 『Digital 『醫林撮要』 해설집, 2004
- 13)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 2000
- 14) 김홍균, 『醫林撮要』의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 2000
- 15) 지창영, 『濟衆新編』의 의사학적 고찰. 경희대 박사학위, 2003
- 16) 河基泰, 『景岳全書』가 朝鮮後期 韓國醫學에 미친 影響에 대한 研究, 대한한학회지, 제20권, 2호, 1999